

9 흥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Chapter

출 13:20~14:31

은혜찬송 100장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찬양 14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께 순종하고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압니다.
2. 그리스도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가장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반드시 만사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난이나 배신, 고립이나 좌절 등 많은 새로운 문제들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할까요?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화를 냈거나 불평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 봅시다.



말씀을 이해하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편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는 애굽의 전차부대와,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섰으나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서 바로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중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인간의 소망이 모두 끊어지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과 구원을 베푸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6~7)

In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ed be, you have been grieved by various trials, that the genuineness of your faith, being much more precious than gold that perishes, though it is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praise, honor, and glory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Pe 1:6~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사 30:18~21)

(고후 1:8~10)

(갈 1:4~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오늘 말씀의 본문(출 13:20~14:31)을 읽고 답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13:21~22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2.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쫓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14장 4절을 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3.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출 14:10~12)?
4. 주님은 이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5. 아래 내용 중에서 내가 동의하는 것에 모두 체크 해 보세요.
 - 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
 - ② 주님을 따르다 할지라도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
 - ③ 순종한 후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
 - ④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순종한 다음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다.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가 후회했거나 화를 냈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혹시 있었다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의 돌보시는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욕신과 관련된 것은 그때 그때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욕신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 1:8)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요!

한 젊은이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사를 읽다가 감동이 되어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요. 큰 기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그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기사를 읽고서 감동이 되어 '할렐루야 큰 기적을 베푸셨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자넨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늪이었다네."

이런 반증으로 신학자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동과 실망에 빠지게 해놓고는 다시 자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뒤에서 다시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아해진 이 신학자는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 건가?"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 물속에 온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